



NO.2147

하늘 마음



2024년 7월 28일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요아킴 파티니르의 <보리 빵과 물고기의 기적>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2열왕 4,42-44

화답송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에페 4,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1-15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생전 마지막 작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ília)



사회사목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



출처 : <https://simple.wikipedia.org>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ília) 성당은 천재 건축가로 알려진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고,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가우디만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춘 건물입니다. 1882년에 착공한 이래 142년째 현재까지도 공사 중이며,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성당이 완공된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탑이 성당의 가운데에 가장 높게 위치하게 되는데, 설계된 탑의 높이는 172.5m로, 울름 대성당(Ulmer Münster)의 161.5m를 넘어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됩니다. 높이가 172.5m인 이유는 바르셀로나의 몬주익(Montjuic) 언덕이 173m라는 점을 감안한 것인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가우디의 겸손한 의도입니다.

서점 주인이자 성요셉 신심회 회장인 '주셉 마리아 보카베야'는 오래전부터 도시 중심에 성가정에 봉헌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건축가 '프란치스코 데 파올라델 비야르'가 자청하여 설계도를 제작하고 보카베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카베야와 마찰이 생겼고, 건축 시작 1년 후 가우디가 후임 건축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생을 마감한 1926년까지 약 43년의 세월을 바친 필생의 역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우디는 죽는 그날까지 연애도, 가정도 꾸리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숙명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이 성당을 짓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sagradafamilia.org>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파사드(건물의 출입문이 있는 외벽)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3개의 파사드는 각각 4개의 탑을 가지고 있어 총 12개의 탑이 세워지는데, 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뒤편에 4복음서를 상징하는 4개의 탑과 예수님과 성모님을 상징하는 2개의 탑이 공사 중인데, 이를 합하면 총 18개의 탑이 됩니다.

	탄생의 파사드	수난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
방향	동쪽	서쪽	남쪽
조각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묘사	예수님의 수난 묘사	예수님의 부활 묘사
출입문 이름	희망의 문, 자비의 문, 믿음의 문	수난의 문	공사 중 *완공되면 주 출입구가 될 예정
출입문 성인 조각상	성모님	요셉	예수님
완공 정도	유일하게 가우디가 완성	호셉 마리아 수바라치가 완성 (1954~1976)	2002 ~ 진행 중



출처 : <https://sagradafamilia.org>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성당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그간 봐왔던 성당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가우디는 성당 내부를 숲과 나무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서면 마치 천장을 향해 우람하게 가지들 뻗은 고목과 같은 기둥에 압도되게 됩니다. 가우디는 나무의 형태와 구조를 따른 이 기둥들이 성당을 지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기둥들은 각기 강도가 다른 반암, 현무암, 화강암 등으로 만들어졌고 기둥마다 길이와 색깔, 모양이 각양각색이지만 그 안에서 보이는 조

화로움이 장관입니다. 기둥은 1년(52주)을 반영하여 52개가 있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황홀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가우디는 “건축은 곧 빛의 배열”이라고도 했는데, 그의 말을 증명하듯 성당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동쪽의 푸른 스테인드글라스는 희망과 탄생을, 서쪽의 붉은 스테인드글라스는 죽음과 순교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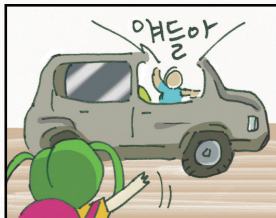
가우디가 성당 외벽에 많은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글을 모르는 사람도 성당 외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학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당 건축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성당 옆에 학교를 지어 운영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우디는 살아있는 성인(聖人)과 같았을 겁니다.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유일하게 지하 성당 묘지에 안장된 가우디. 교황청은 그의 천재성과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인정하여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해 심사 중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가 이곳에서 영면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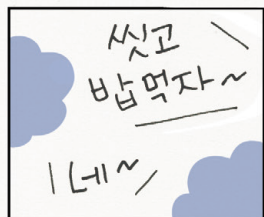




날으는 CYA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기후 위기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기후 난민’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임현호 도미니코 신부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CYA 친구들! 저는 환경사목위원회에서 교회 안 환경 활동을 하는 임현호 도미니코 신부입니다.



출처 : The Nation

우리 친구들은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먼저 '난민(亂民)'이란 인종, 종교,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하고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난민이라는 단어 앞에 기후라는 단어가 붙으니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지금 세상 곳곳에는 **심각한 기후 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여 생계가 잠식되는 해안 지역, 반복적인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어려운 지역,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후 난민'입니다.

기후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에요. 이 지역의 공통점은 자연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데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기후 위기에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강대국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소외당하고 약한 이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2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연 훼손으로 악화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신이 포기한 삶에 따른 소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관련된 이 비극에 대한 우리의 부실한 대응은 모든 시민 사회의 기초인,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감의 상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 「찬미받으소서」 25항

CYA 친구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해요.



출처 : Greenpeace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과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CYA 친구들도 기후 위기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2024 레크댄스 교육 - 로켓이 취재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청소년국 중고등부 레크댄스 교육의 생생한 현장과 교육에 참가한 선생님들과 CYA 친구들의 인터뷰가 담긴 로켓이 인스타그램에 발행되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고 인터뷰를 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 @locat_foryouth도 꼭 팔로우해주세요!



복음자리

2024년 7월 28일 | 연중 제17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요한 6,1-15)

새겨보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가진 빵과 물고기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이보다 많은 음식을 가진 어른들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의 음식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당신을 통한다면, 더 큰 것을 만들어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익명의 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음식을 예수님께 바쳐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봉헌하며,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